



여름 바다 '요트 레이스'

26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열린 SAP 505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삼각돛을 단 요트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군대전' 표구하기 전쟁



호랑이-곰 싸움 시선집중... 주말 잠실전 인터넷 판매 동나

투·타의 확실한 업그레이드 속에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7개 구단에게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됐다. 하지만 성적을 때어놓고 보면 가장 반가운 손님이기도 하다. 팀의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쓴 KIA는 전국에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롯데와 함께 '전국구 구단'으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1위 KIA와 3위 SK가 맞붙었던 지난주말 양팀의 경기가 열렸던 문학구장에는 KIA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틀연속 2만7천8

석의 경기장이 야구팬들로 꽂 들어차다. 문학구장 3루석과 외야는 KIA를 응원하는 노란 물결이 가득차는 등 선수들은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전에 힘입어 싸움이 3연승을 거뒀다. 이번주말 두산과의 1위 전쟁이 예정된 잠실구장에도 역시 KIA 팬들의 대규모 운집이 예상된다. 두산과의 빅매치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KIA 팬들의 표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두산과의 3연전 입장권이 판매되는 예매사이트 티켓링크에서는 이미 4천400여석에 달하는 3루 지정석(레드존, 블루존, 로터보이존)

이 모두 매진됐다. 잠실 구장의 총 수용관중인원은 3만500석, 29일 경기의 경우 일반석(2만1천700석)도 예매가능 분량이 5천석 밖에 남지 않았다. 주말 3연전 티켓 판매가 개시됐던 지난 14일에는 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쫓는 KIA는 2009년 프로야구의 중심에 서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美 스포츠 스타들 100,000달러 벌려면...



▲ 11.2홀 돌고 ▲ 공 6개 상대 ▲ 4차례 패스 ▲ 21분 뛰고

스포츠 스타 수입에서 해마다 1위를 놓치지 않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0만 달러(한화 1억2천만원)를 벌려면 11개홀만 돌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26일 주요 스포츠 스타들이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데는 노동 강도를 비교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우즈는 11.2홀마다 10만 달러를 벌었다. 이 신문은 "우즈는 한 번 클럽을 휘두를 때마다 2천329달러(한화 29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연봉이 3천300만 달러인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노동 강도로 따지면 우즈보다 더 낫다. 상대 투수의 공 6개를 상대할 때마다 10만 달러를 벌게 되고 구단주 입장에서 로드리게스에게 공 하나를 상대하게 하려면 1만5천856달러가 필요하다. 또 미국프로풋볼(NFL)의 벤 로슬리버거는 네 차례 패스를 하면 10만 달러를 벌고 미국프로농구(NBA) 르브론 제임스는 전반전 시간도 채 되지 않는 21.2분을 뛰면 10만 달러가 통장에 입금된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는 28개임을 뛰면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 10만 달러를 버는 데 비교적 노동 강도가 많은 스타로는 미국 자동차경주 나스카의 토니 스투어트가 꼽혔다. 스투어트는 125바퀴를 돌아야 10만 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프로볼링(PBA) 놉 듀크도 2천360개의 프레임을 거쳐야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반적인 미국인이 10만 달러를 버는 데 4년이 걸린다"며 "듀크가 가장 일반 미국인에 가까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미영씨 꿈 대신 이루어집니다"

김재수 대장 히말라야 14좌 완등위해 출국

지난달 초 남가파르밧(8천125m) 설원에서 사망한 고미영씨의 히말라야 원정대 동료인 김재수(48) 코오롱스포츠 활린지점 대장이 고인의 히말라야 14좌 완등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난다. 김 대장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안나푸르나(8천91m)로 향한다. 김 대장은 한 달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말이나 10월 초 등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 대장은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할 경우, 내년 봄 가셔브롬 I (8천80m), 가셔브롬 II (8천34m)에 차례로 올라 고인이 못다 이룬 14좌 완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대장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바와는 달리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여름(7-8월) 초오유(8천201m)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초오유는 고인이 오른 히말라야 봉우

리 11개 중 김재수 대장이 고인과 함께 오르지 못한 유일한 고봉이다. 이 등정까지 성공하면 김재수 대장은 2007년 5월 고인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오른 이후 3년 2-3개월만에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최단기간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이다. 김 대장은 이에 대해 "고미영 대장의 생전 목표가 잘못 알려졌다"라며 "고인의 목표는 히말라야 14좌를 다 오르는 동시에, 최단기간에 오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 14좌 완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으면 하고 바랄 것이고 그 점에서 제가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볼트 "멀리뛰기·400m도 도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멀리뛰기와 400m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2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볼트는 "나는 멀리뛰기도 잘 하려는 자신이 있기에 은퇴하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볼트는 2008베이징올림픽과 지난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 200m, 400m 계주 등 단거리 3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휩쓸고 세계신기록 5개를 세웠다.

볼트는 또 "내 코치가 100m와 200m를 지배했으니 다른 걸 해보라고 권유한다면 2012년 런던올림픽 쏜에는 400m도 달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멀리뛰기 세계기록(8m95)을 보유한 마이크 포웰(미국)은 "볼트가 마의 9m 벽을 깨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20세기 최고의 스프린터로 평가받는 칼 루이스(미국) 등 단거리와 멀리뛰기를 병행하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종목별 전문화가 이뤄진 2000년대 이후에는 단거리와 멀리뛰기를 함께 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국시간) 지난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단거리 3관왕을 차지하며 천재성을 뽐낸 '변개'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곧 자서전을 펴낸다. 볼트 에이전트인 리키 심스는 26일 AP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출판업자와 볼트의 자서전 출간을 논의 중이다. 트랙 바깥에서 생활도 포함, 볼트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00m, 200m, 400m 계주를 휩쓴 볼트는 특히 100m와 200m에서는 9초58과 19초19라는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연합뉴스

볼트 트랙 밖 생활은? 조만간 자서전 출간